

<2020 ~ 2021년 평가원 기출 중요 지문 & 선택지 정리>

01

고대 문명

◇ 메소포타미아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li> <li>•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li> <li>•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li> <li>• 도시의 수호신을 섬겼고,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권 정치를 행하였다.</li> </ul>	
◇ 이집트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사람들은 풍뎡이가 재상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여겨 미라를 매장할 때 사자의 서와 함께 이러한 유물을 넣었다.</li> <li>• 피라미드와 �핑크스를 세웠다.</li> <li>• 미라를 제작하였다.</li> <li>• 태양신의 아들, 나일강의 지배자 파라오 특별전</li> </ul>	
◇ 인더스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li> <li>• 모헨조다로에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li> </ul>	
◇ 황허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골에 점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li> </ul>	
◇ 에게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li> </ul>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중국)

◇ 춘추 전국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晉)이 한(韓), 위(魏), 조(趙) 3국으로 분열하는 등 세력 관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소수의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b>시대</b>가 시작되었다.</li> <li>• 변법 시행을 주장하는 법가 사상이</li> <li>• 전국 7웅이 패권을 다투었다.</li> </ul>	
◇ 진(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상 이사의 건의에 따라 각지에서 쓰던 여러 형태의 문자를 금지하고 소전(小篆)의 문자만 사용하게 하였다.</li> <li>• 경서를 불살랐으며, 백성을 대거 징발하여 만리장성 축조 및 전쟁 등에 동원하였다.</li> <li>•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li> <li>• (가)의 제2대 황제가 말하기를 “선제(先帝)께서는 수도 셴양의 조정이 좁다고 여겨 아방궁을 짓도록 하셨다. 그러나 궁실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공사를 그만두고 여산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지금 여산의 공사가 모두 끝났는데도 아방궁 건립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선제께서 잘못된 일을 벌이셨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아방궁 공사가 재개되었다.</li> <li>•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났다.</li> </ul>	

◇ 한(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 책</b>의 이름은 태사공서로 천문, 기록 등을 담당하던 태사령이라는 저자의 관직명에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전설을 포함하여 당시까지의 역사를 본기, 세가, 열전, 서, 표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li> <li>• 훈고학이 발달하였다.</li> <li>• 흉노 견제를 위해 대월지와 동맹을 추구하였다.</li> <li>• [가]은(는) 평민 출신으로 도량이 넓고 사람을 능력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여, 진(秦)이 멸망한 지 5년 내에 천하를 재통일하였습니다.</li> <li>• 서역에 출사했던 장건이 죽은 지도 30년이 다 되었고, 그를 보냈던 <b>왕제</b>께서도 얼마 전에 승하하셨소.</li> <li>•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li> <li>• 왕망이 신을 건국하였다.</li> </ul>
--------	--

◇ 위진 남북조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룡먼 석굴 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li> <li>• 9품중정제를 시행하였다.</li> <li>• 북위가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li> <li>• [가]의 황제는 삼장제를 통해 내치를 다지고, 도읍을 궤양으로 옮겼다.</li> <li>• 균전제를 시행하였다.</li> <li>•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li> <li>•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지었다.</li> </ul>
-------------	--

◇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제거 등 대운하가 건설되었다.</li> <li>• 고구려 원정이 추진되었다.</li> <li>• 9품중정제가 폐지되었다.</li> </ul>
-----	--

◇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사의 난이 발생하였다.</li> <li>•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하였다.</li> <li>• 변경으로 파견되는 절도사</li> <li>• [가] 왕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 박물관 특별전</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차와 융합, [가] 왕조 특별전</p> <p>○○○○년 ○월 ○일 - ○일</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60%;"> <p>제1 전시실   예빈도로 읽는 유라시아 외교</p> <p>제2 전시실   마노 잔에 나타난 귀족 생활</p> <p>제3 전시실   삼색 도자기로 보는 국제 교류</p> </div> <div style="width: 35%; text-align: right;">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백, 두보가 시를 남겼다.</li> <li>•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다.</li> <li>• [가]의 황제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yellow;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의 황제는 동돌궐을 무너뜨리고 그 지배하에 있던 북방 민족까지 복속한 것을 기념하여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곧이어 이민족 군장들이 입궐하여 [가]의 황제에게 천하의 칸을 뜻하는 텡그리 칸으로 등극하길 청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였다.</li> <li>• 부병제를 실시하였다.</li> <li>•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을 실시하였다.</li> <li>• 균전제가 실시되었다.</li> </ul>
-----	---

◇ 당	<p>• 왕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신문 <span style="float: right;">2021년 6월 ○○일</span></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국립 중앙 박물관은 한문 자료 '시신 깔개에 부착된 중국 관문서'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다. 하나는 <u>조, 응, 조의 세금</u> 중 영남도에서 거둔 조세의 배분 및 운송에 관한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고창현에서 <u>도주한 부병에 관한 문서</u>이다. 이 한문 자료는 이후 <u>주전총에</u> 의해 <u>멸망할 때까지</u> 유지된 해당 <u>왕조의</u>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된 문서의 일부</p> </div> </div> </div>	
-----	---	--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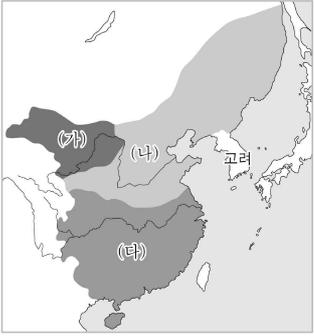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일본)

◇ 아스카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li> <li>• 견수사에 동행하는 유학생</li> <li>•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을 시행하였다.</li> <li>• 천황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li> </ul>	
◇ 나라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조쿄 천도를 지시하는 천황</li> <li>• 견당사의 일원으로 파견 가는 승려</li> <li>•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도다이사를 답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불전 안으로 들어가면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던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0 5px;">(가)</span> 시대의 문화유산인 거대한 본존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li> <li>• 『고사기』가 편찬되었다.</li> </ul>	
◇ 헤이안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당사 파견이 중단되었다.</li> <li>• 『도사일기』에는 수도 헤이안쿄의 변화된 모습 등을 가나 문자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b>이 시대</b>의 생활 모습이 담긴 와카(和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li> <li>• 헤이안쿄 천도를 명하는 천황</li> <li>• 송으로부터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되었다.</li> </ul>	

### 04

####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중국)

◇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 작과 같은 동업 조합이 결성되었다.</li> <li>• 신종(神宗)에 의해 재상으로 등용되어 청묘법, 보갑법 등 각종 개혁을 주도하였다.</li> <li>• 거란(요), 서하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렸다.</li> <li>• 장택단이 &lt;청명상하도&gt;를 그렸다.</li> <li>•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li> <li>•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였다.</li> <li>• 과거제에 전시를 추가하였다.</li> </ul>	
-----	--	--

<p>◇ 거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put type="checkbox"/> (가) 은(는) 도성의 북쪽에 추밀원과 행궁 도총관사를 두어 이를 북면(北面)이라 칭하고 유목민 통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인 추밀원과 한인 중서성, 한인 행궁 도총관사가 있어 이를 남면(南面)이라 불렀다.</li> <li>• 후진으로부터 연은 16주를 얻었다.</li> <li>• 북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li> <li>•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다.</li> </ul>	
<p>◇ 서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탕구트족이 세웠다.</li> <li>• 고유 문자를 제작하였다.</li> </ul>	
<p>◇ 여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li> <li>• 맹안 모극제를 실시하였다.</li> <li>• 송과 연합하여 거란(요)을 멸망시켰다.</li> <li>• 고유 문자를 제작하였다.</li> </ul>	
<p>◇ 몽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괄수경 등이 수시력을 제작하였다.</li> <li>•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였다.</li> <li>• 천호제를 운영하였다.</li> <li>•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였다.</li> <li>• <input type="checkbox"/> (가) 제국</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동서 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랍반 사우마가 있다. 그는 <input type="checkbox"/> (가) 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우스교 사제로서, 대원 울루스의 대도를 출발하여 오고타이(우구데이) 울루스의 칸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홀라구 울루스에 도착하였다. 당시 홀라구 울루스의 칸은 맘루크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동맹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그를 로마, 파리 등지에 파견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참을 운영하였다.</li> <li>• <input type="checkbox"/> (가) 황제는 즉위 전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금련천 일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하였는데, 즉위 후에 이를 상도(上都)로 승격시켰다. 한편, 황제는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中都) 인근에 도성을 쌓아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대도(大都)라고 부르게 하였다.</li> <li>• 임안(항저우)을 점령하고 남송을 멸망시켰다.</li> </ul>	

05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일본)

<p>◇ 가마쿠라 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입하였다.</li> </ul>	
------------------	--	--

◇ 명

• 주원장이 건국하였다.

• (가) 황제, 짐 = \_\_\_\_\_

(가) 황제는 황태손인 주윤문에게 『**황명조훈**』이라는 책을 하사하였다. 이 책은 후대 황제들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로 자신이 개창한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찬한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서성과 재상을 두지 말고 황제가 직접 정무를 다스릴 것**,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짐은 건국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을 벗어난 형벌을 사용하였다. 이제부터 법전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또한 짐은 재상직을 폐하고 천하의 사무를 오부, 육부, 도찰원 등 여러 관청에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나를 이을 군주들은 재상을 다시 세우지 말지어다.



• (가) = \_\_\_\_\_, (나) = \_\_\_\_\_

(가) 은(는) 황제가 된 후에는 (나) 이(가) 개국공신 한신을 처형했던 것처럼 재상 호유용을 주살하고 재상직을 폐지하였다.

-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였습니다.
- 육유를 반포하였다.
- 이갑제가 시행되었다.
- 인도양에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 내각 대학사를 두었다.
- 양명학이 발달하였다.
- 『천공개물』이 간행되었다.

◇ 청

-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합하였습니다.
-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 황제 = 성조 \_\_\_\_\_ (재위 1661 ~ 1722)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6가지 항목의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고르비차강과 스타노보이산맥 등을 경계로 한 국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양국 간 국경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 조약을 체결한 황제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 반청 세력인 타이완의 정씨 집단을 제압하였습니다.

<p>◇ 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은 새로운 수도</b>에 자리 잡은 후 백성에게 유익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시간을 계산하고 절기를 분별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b>아담 살</b>이 교정한 달력을 살펴보았는데, 일식·월식을 비롯한 모든 천문 현상이 그의 계산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에 <b>집</b>은 하늘이 <b>우리 왕조의</b> 번영을 위해 그를 보내 주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역법을 개정하여 <b>시현력</b>을 만들고 황실 천문대에서 천문 기기를 제작하는 일을 맡겼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수도에 설립된 성당에서 가톨릭의 전례에 따라 예배도 올렸다.</li> <li>• 티베트, 신장을 복속시켰다.</li> <li>• 티베트 등 번부를 간접 지배하였다.</li> <li>• 팔기제를 운영하였다.</li> <li>•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하였다.</li> <li>•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li> <li>• 군기처를 설치하였다.</li> <li>• 『홍루몽』을 읽는 상인</li> <li>•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li> </ul>	
------------	--	--

<p>◇ 명, 청대의 사회·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수, 감자 등의 외래 작물이 도입되었다.</li> <li>• 일조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li> <li>• 청대의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지금 각지에서는 <b>토지를 가진 자에게 정세(丁稅)를 지세(地稅)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b>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세의 부담도 없으니 실로 공평합니다. 늘어난 인정(人丁)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도,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증가분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p> </div>	
-----------------------	---	--

**07**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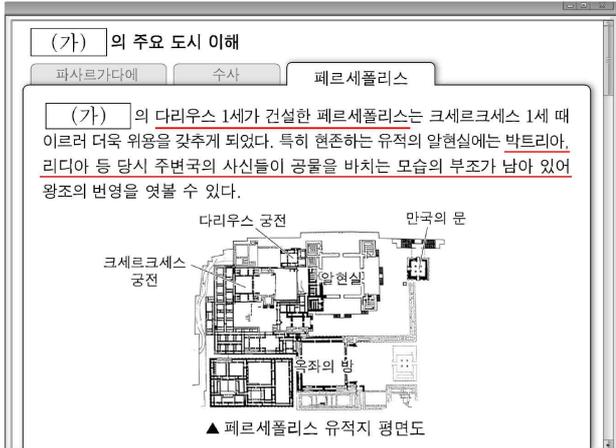
<p>◇ 무로마치 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과 감합 무역이 이루어졌다.</li> <li>• 전국 시대의 혼란이 시작되었다.</li> </ul>	
------------------	---	--

<p>◇ 에도 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지마 건설에 동원된 농민</li> <li>• 여행이 이루어진 시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나는 <b>동인도 회사의 상관장</b>과 함께 쇼군을 접견하는 여행에 동행하였다. 여행의 목적은 쇼군에게 감사의 선물을 바치고 서양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쇼군 쓰나요시를 만났고, 그는 나에게 국제 정세 등 여러 의문 사항을 질문하였다. 쇼군과의 만남 이후 우리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공식 일정을 마친 우리 일행은 <b>귀로에 나서 데지마로 돌아왔다.</b></p> <p style="text-align: right;">- 엔겔베르트 캠퍼, 『일본의 역사』</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가제법도가 반포되었다.</li> <li>• 산킨코타이를 위해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li> </ul>	
----------------	---	--

<p>◇ 에도 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킨코타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함대가 무력시위를 벌였다.</li> <li>• 시모다 등을 개항하였다.</li> <li>• 얼마 전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아뢰기를, 외국과의 교류가 날로 성하여 <b>권력 집중 없이는 국가 기강을 세우기 어려워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다고 하였다.</b> 이제 천황이 이를 받아들여 왕정을 복고하고 국가의 위엄을 만회할 방책으로 막부를 비롯하여 섭정, 관백 등을 폐지하기로 천명하였다.</li> <li>• 사쓰마번과 조슈번이 동맹을 체결하고 막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막부는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조치를 단행</b>하였다. 하지만 이를 막부의 술책으로 간주한 사쓰마번과 조슈번 동맹군은 <b>교토의 궁정을 장악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발표</b>하였다.</li> <li>• 미국 등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다.</li> </ul>	
----------------	--	--

08

고대 서아시아 세계

<p>◇ 아시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을 건립하였다.</li> </ul>	
<p>◇ 아케메네스 페르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디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 바드프라다드는 <b>제국</b> 말기의 혼란 속에서 수도와 사르디스를 잇는 도로망 일대를 장악했던 반란군에 맞서 싸웠다. 또한 에게해 섬들이 필리포스 2세에 의해 결성된 코린토스 동맹에 동조하며 <b>제국</b>에 대항하자, 이들을 공략하였다.</li> <li>•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되었다.</li> <li>• (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와 격돌하였다.</li> <li>• 수사와 사르디스를 잇는 왕의 길이 건설되었다.</li> <li>•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하였다.</li> </ul>	

<p>◇ 파르티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산 왕조와 교역하였다.</li> <li>•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다.</li> <li>•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차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케스 1세가 (가)을(를) 세웠다. 이후 (가)은 (는) 서쪽 방면으로는 셀레우코스 왕조, 동쪽 방면으로는 박트리아와 경쟁하였다. 그리고 오로데스 2세 치세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권력을 분점하던 크라수스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한편 전성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장악하였고, 로마 제국과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다.</li> </ul>	
---------------	--	--

<p>◇ 사산 왕조 페르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다.</li> <li>•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수립하였다.</li> <li>• 마니교가 출현하였다.</li> <li>• 카르티르는 (가)의 샤푸르 1세를 계승한 호르미즈드 1세 때 조로아스터교 사제장의 지위에 올랐다. 바흐람 1세 때는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 마니를 처형하였고, 마니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종교 탄압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 반면, 조로아스터교는 (가)의 국교로 자리매김하였다.</li> <li>• 크테시폰의 사원에서 기도하는 신도</li> <li>•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 및 왕실 내분으로 쇠퇴하였다.</li> <li>•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되었다.</li> </ul>	
-----------------------	---	--

09

이슬람 세계의 성립과 발전

<p>◇ 정통 칼리프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li> </ul>	
<p>◇ 우마이야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베리아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li> <li>•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새 왕조는 (가)을(를) 도움으로 정하였다. 이 도시는 메디나보다 훨씬 손쉽게 지중해 동부 해안 지대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li> <li>•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였다.</li> <li>• (가)의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하자, 합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해 온 관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고 메카에 머물렀으며, 쿠파에 있는 알리의 추종자들은 서한을 보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후세인은 자신의 측근과 함께 쿠파로 향하자, 야지드 1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유프라테스강 근처 카르발라에서 후세인을 살해하였다.</li> </ul>	
<p>◇ 아바스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가문인 비아람인을 차별하던 왕조를 타도한 후 새 왕조를 개창하고 (가)(으)로 천도하였다. 이 도시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세계의 시장'으로 불렸다.</li> <li>• 셀주크 튀르크에 의해 점령되었다.</li> </ul>	

<p>◇ <b>아바스 왕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투그릴 베그</b>는 단다칸 전투에서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하여 호라산 일대를 장악하고 이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파한을 점령하였다. 또한 그는 (가)의 알 카임 1세의 요청에 따라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부와이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하였다. 이후 투그릴 베그는 알 카임 1세에게서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고, 이슬람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li> <li>• 몽골군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li> <li>• 홀라구의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를 침공하였다.</li> <li>• <b>알 만수르</b>는 “내가 건설하는 이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하리라!”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바그다드는 (가)의 수도로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 위대한 페르시아 왕들의 도서관을 모델로 ‘지혜의 집’을 건설하였다. ‘지혜의 집’은 학문 연구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지역의 문헌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준 높은 학문이 발달하였다.</li> <li>•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li> </ul>	
<p>◇ 후우마이야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li> </ul>	
<p>◇ 파티마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li> </ul>	
<p>◇ 셀주크 튀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는 병사</li> </ul>	

10

이슬람 세계의 확대

<p>◇ 티무르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li> <li>•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하였다.</li> </ul>	
<p>◇ 사파비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다.</li> <li>•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li> <li>•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li> <li>•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li> <li>• 이스파한을 수도로 정하였다.</li> </ul>	
<p>◇ 오스만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그동안 교황과 황제 및 제후들과 함께 <b>이교도</b>에 맞서 잘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교 세계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엔 (가)은(는) 베오그라드를 점령하였고, 이제는 우리 헝가리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 의회는 그리스교 세계를 위해 싸워 온 헝가리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헝가리가 (가)에 의해 정복된 콘스탄티노폴리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li> <li>• <b>술탄이 통치한 제국</b></li> </ul> <div data-bbox="454 1792 1029 204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일찍이 그리스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가 새 수도를 정하고, 이를 '새로운 로마'로 칭하였습니다.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b>술탄이</b> 난공불락의 그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자신이 황제의 권좌에 오를 만한 강력한 지배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위대한 술탄은 우리 그리스교도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어 자신이 자애로운 통치자라는 사실을 과시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준티오스 -</p> </div>	

<p>◇ 오스만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li> <li>•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li> <li>•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li> <li>•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다.</li> <li>• (가)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가) 은(는) 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여 '입법자'로 불리었다. 또한 건축과 문학,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후원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다. (가) 은(는) 영토 확장에도 힘써 동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헝가리 정복에 이어 빈을 공격하는 등 세 대륙에 걸쳐 술탄의 위세를 떨쳤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_____]</li> <li>•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_____]</li> <li>•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_____]</li> <li>•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_____]</li> <li>•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공격하는 장군</li> <li>• 술탄이만 1세는 사파비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b>티무리의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b>을 지원하였다.</li> </ul>	
-----------------	--	--

11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

<p>◇ 통일 왕조 등장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행을 통한 해탈을 주장하는 자이나교가 등장하였다.</li> </ul>	
<p>◇ 마우리아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유물은 (가) 의 아소카왕을 모델로 하여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아소카왕을 아육왕이라 불렀으며, 전륜성왕의 화신으로 이해하였다. 아소카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조한 조칙을 새긴 석주를 만들어 각지에 세웠다.</li> <li>•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였다.</li> <li>• 알렉산드로스의 사망 이후 그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을 자처하며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하였다. 그는 펀자브 지방을 거점으로 영토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가) 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결국 셀레우코스 1세는 (가) 와(과) 평화 협정을 맺어 펀지브 지방 및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등을 할양하고, 친선 관계 유지를 위해 사절을 파탈리푸트라에 파견하였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세계 여행 〉</p>  <p>이것은 (가) 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산처 대탑이다. 이 탑은 반구형의 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탑 둘레에는 부처의 생애가 새겨진 4개의 문이 있다.</p> </div>	

<p>◇ 쿠산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 제작되었다.</li> <li>•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li> <li>• (가) 왕조</li> </ul> <p>이 유물은 페샤와르 인근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사리 용기로 덮개 부분에 불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의 카니슈카왕이 불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불경을 모으고 사원을 건립하는 등 불교를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불교가 발달하였습니다.</p> 	
----------------	--	--

<p>◇ 굽타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성행하였다.</li> <li>• 에프탈이 북인도를 침입하였다.</li> <li>• 에프탈의 침입이 가져온 결과를 알아본다.</li> </ul>	
----------------	---	--

<p>◇ 델리 술탄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티브 미나르가 세워졌다.</li> </ul>  <p>이 건축물은 튀르크 세력이 펀자브 지방을 넘어 마침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델리를 중심으로 여러 이슬람 왕조가 지속되며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바크의 인도 진출 과정을 조사한다.</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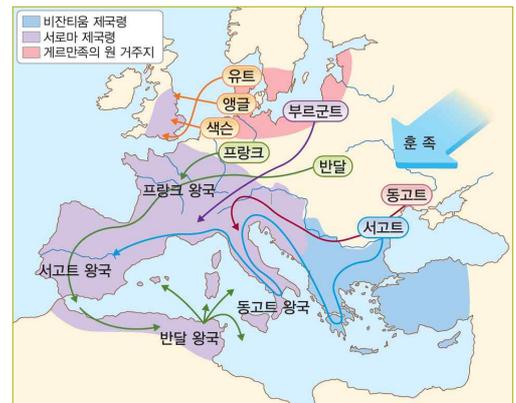
<p>◇ 무굴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그는 델리를 거점으로 삼은 이브라힘 로디를 파니파트 전투에서 격퇴하고 (가)을(를) 건설하였다.</li> <li>• 데칸고원 일대를 장악하였다.</li> <li>• 왕제는 정복 활동을 통해 데칸고원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의 영광을 드높였다. 그러나 그는 선대 왕제가 폐지하였던 지즈야를 부활시키는 등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하였고, 이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특히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반대하였던 이 세력은 고빈드 싱의 지도 아래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끈질기게 이어갔다.</li> <li>• (가)의 마지막 황제인 바하두르 샤 2세는 시와 서예 등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제국의 통치자로서는 불운하고 무력하였다. 영국의 압박 속에 별궁에 머물던 그는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이 일으킨 봉기에서 명목상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다 권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li> <li>• 마라타 동맹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li> <li>•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다.)</li> <li>• 시크교가 출현하였다.(나나크의 사상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li> <li>• 궁전 형태의 묘당인 타지마할이 조성되었다.</li> <li>• 우르두어를 공용어(일상어)로 사용하였다.</li> </ul>	
------------------	--	--

<p>◇ 동남아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승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가 축조되었다.</li> <li>• 시크교의 사원이었다. ( ○ : × )</li> <li>•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축조되었다. ( ○ : × )</li> <li>• 크메르족이 세운 국가에 의해 건립되었다. ( ○ : × )</li> <li>• 찬드라굽타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되었다. ( ○ : × )</li> </ul>	<div data-bbox="973 324 1236 41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자와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어요. 수많은 작은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p> </div> 
----------------	---	---

<p>◇ 그리스의 폴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li> <li>• (가)은(는) 혈연 중심의 네 개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열 개 부족으로 재편하였다. 이후 각 부족에서 50명씩 선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li> <li>•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li> <li>• (나)은(는) 공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요 관직과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하여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였다.</li> <li>•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하였다.</li> <li>•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였다.(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li> </ul>	
-------------------	---	--

<p>◇ 알렉산드로스 제국**</p>	<p>•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p>  <table border="1" data-bbox="454 1702 1125 1758"> <tr> <td>(가)</td> <td>(나)</td> <td>(다)</td> <td>(라)</td> <td>(마)</td> </tr> </table> <p>로마 공화정 수립    마라톤 전투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제2차 포에니 전쟁 발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로마 제정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li> <li>• 나는 (가)이(가)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가 로마와 전쟁을 벌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로마가 자신이 상대한 다리우스 3세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을 것이다. .... 이 위대한 마케도니아왕은 복장을 페르시아식으로 바꾸었고, 왕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부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li> <li>•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li> </ul>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p>◇ 로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민관직을 설치하였다.</li> <li>• 12표법을 제정하였다.</li> <li>•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li> <li>•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기원전 264 ~ 기원전 146)</li> <li>•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li> <li>•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한 원인을 찾아본다.</li> <li>•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였다.</li> <li>• (가)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그림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을 묘사하고 있다. 우측에는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있었다. 그의 함대는 클레오파트라 등이 합류한 연합군이었다. 좌측에는 (가)의 함대가 있었다. 그의 함대는 잘 훈련된 군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아그리파라는 뛰어난 전략가의 지휘 아래 봉쇄 작전을 펼쳐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격파하였다. (가)은(는)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프린켑스라 불렀다.</li> <li>• 제국을 4분할하여 통치하였다.</li> <li>•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 제국의 안정을 위해 리키니우스와 다음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제 크리스티교도와 다른 종교 신봉자 모두는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 <b>이 순간 이후로 크리스티교도는 제국 내에서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다.</b>”</li> <li>•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li> <li>•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다.</li> <li>• 콜로세움을 건립하였다.</li> </ul>	
-------------	---	--



14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p>◇ 게르만족의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되었다.</li> </ul>	
-------------------	---	--

<p>◇ 프랑크 왕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였다.</li> <li>• 투르 ·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사 신문 <span style="float: right;">○○○년</span></p> <p>《특집 기획》</p> <p style="text-align: center;"><b>클로비스,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다</b></p> <p>(가)의 클로비스가 마침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클로비스는 개종을 통해 로마 주민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다. 앞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p>▲ 세례를 받는 클로비스</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렸다.</li> <li>• 롬바르드족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다.</li> </ul>	
-----------------	---	--

<p>◇ 프랑크 왕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li> </ul> <p>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일족이 <b>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b> 이베리아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레네산맥 너머 파더보른의 왕궁으로 사신들을 급파하였다.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b>“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b>하였습니다. 부친의 공덕을 이은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저 위협적인 군대를 격파한다면 신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정 학교를 세워 고전 연구를 후원하였다.</li> <li>• 카롤루스 르네상스의 내용을 파악한다.</li> <li>• 베르딩 조약으로 분열되었다.</li> <li>• 메르센 조약을 통해 영토를 분할하였다.</li> </ul>	
-----------------	---	--



15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p>◇ <u>크리스트교의 발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었다.</li> <li>• 성상 파괴령 반포의 배경을 이해한다.</li> <li>• 클뤼니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li> <li>• 동서 교회의 분열이 공식화되었다.</li> </ul>	
-----------------------------	--	--

<p>◇ <u>교황권의 확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임권 투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li> </ul> <div data-bbox="475 1458 1054 17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음 칙령을 반포하노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만이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는다.</li> <li>○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li> <li>○ 누구도 교황을 재판할 수 없다.</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내 권위와 온전함을 확신하니, 나는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b> 하인리히 4세가 신성 로마 제국과 이탈리아 내 그의 왕국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하노라. 그는 크리스트교도로서 준수해야 할 복종을 거부하였고, 신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방향하였다. 또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경고를 무시하였다.</li> <li>•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조사한다.</li> <li>• 황제와 교황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li> <li>•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서임권 문제로 파문당하였다.</li> </ul>	
---------------------------	--	--

◇ 비잔티움 제국

-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 십자군에 의해 정복되었다.
- (가) \_\_\_\_\_, (나) \_\_\_\_\_

이 시기 서아시아에서는 두 제국의 충돌로 인해 아라비아반도로 우회하는 교역로가 발달하고 메카, 메디나 등이 경제적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 (가) \_\_\_\_\_

-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 십자군 전쟁

-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하였다.(\_\_\_\_\_년)
- 전쟁의 배경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크리스티교도**들은 그곳을 40여 일간 포위하였다. 그들은 성 주변에 두 개의 공성탑을 세웠다. 우리 무슬림들이 그중 하나를 불태우고 그 위에 있던 크리스티교도들을 죽이며 맞섰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방향으로부터 함락되었음을 알리는 전령이 도착**하였다. 크리스티교도들은 금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의 북쪽 방향에서 도시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 이븐 알 아시르, 『역사완본』

-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p>◇ 교황권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 _____ ~ _____ 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하</b></p> <p>지난밤 꿈에서 신께 받은 계시를 아뢰옵니다. 바라건대 세석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론 강가의 기묘한 성채를 떠나 하루바삐 로마로 돌아가시어 어린 양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 그리하여 보니파키우스 8세가 능멸당한 이래로 지난 70여 년 동안 ① <b>오욕으로 점철된 세월</b>을 정결하게 씻어 내어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right;">시에나의 카타리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졌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신의 은총으로 교황 성하게 인사드립니다. 신의 영광 아래 영성 충만한 삶을 살아왔으나 최근 들어 신의 재산까지 세금의 명목으로 <u>탈하는 필리프 4세의 간악한 행태에 분노할 따름입니다.</u> 교황 성하께서 "세속의 권력은 영적 권력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신의 뜻을 재천명하시고, 그를 파문하신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u>필리프 4세가 보낸 사악한 무리들이 아나니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에</u> 그저 눈물 흘리며 교황 성하의 안위를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초래한 <u>갈등</u>이 신의 뜻에 따라 해결되길 신의 이름으로 믿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교황 성하의 충실한 종복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스탄츠 공의회(_____ ~ _____ 년)에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이단으로 규정되었다.</li> </ul>	
------------------	---	--

<p>◇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나)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가)의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여성은 왕위 계승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아들 역시 왕위 계승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초기에는 (가)이(가) 우세하였으나 잔 다르크 등의 활약으로 (나)이(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랑드르,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다.(_____ ~ _____ 년)</li> </ul>	
-----------------------	--	--

**18**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p>◇ 르네상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신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였다.</li> </ul>	
<p>◇ 종교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1483 ~ 1546)</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파사우의 주교 볼프강에게</p> <p>나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직무 대행을 맡은 페르디난트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보기에 그의 최근 행위는 유럽의 여러 군주와 선량한 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었소. 즉 페르디난트는 교황 레오 10세의 뜻을 거역한 비텐베르크의 (가) 을/를 추종하는 무리와 타협했던 것이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바로 그 증거요. 이로써 그들의 신앙이 인정되어 교회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소.</p> <p style="text-align: right;">교황 파울루스 4세</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li> </ul>	

◇ 종교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회를 설립하여 해외 선교에 힘썼다.</li> <li>•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하였다.</li> <li>•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설을 주장하였다.</li> <li>•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종교 갈등을 완화시켰다.</li> <li>• 30년 전쟁의 결과를 분석한다.(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li> <li>•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이루어졌다.</li> </ul>
---------	---

**19**

유럽 세계의 변화

◇ 신항로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대서양 무역</b></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유럽인의 침략과 새로 유입된 전염병으로 원주민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게다가 유럽인은 포토시 은광 같은 곳에서 원주민 노동력을 가혹하게 이용하여 막대한 은을 수탈하였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p>대동장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어 부족해진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로 충당하였지.</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li> <li>• 포토시 은광 개발을 주도하였다.</li> <li>• 항해를 후원한 나라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POSTCARD</p>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margin-left: 10px; font-size: x-small;"> <p>○○에게 안녕, 여기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이야. 이 수도원이 세워진 터에 엄청난 일화가 있어. 이곳에서 바스쿠 다 가마가 동방의 산물을 찾아 인도로 가는 첫 항해에 나서기 전, 두려움을 안고 기도했다고 해. 미지의 바다로 진출했던 이 시기는 부를 추구한 욕망의 시대이자 경건한 신앙의 시대였어. 또 연락할게. △△가</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르무즈, <b>몰리카</b>,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li> </ul>
----------	---

◇ 절대 왕정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put type="text" value="(가)"/> = _____ (재위 1558 ~ 1603)</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가) 은/는 대외적으로는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펠리페 2세의 대결에서 무적함대를 막아냄으로써 왕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p>또한 대내적으로는 동일법 제정을 통해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어.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화려한 화장과 복장을 통한 신비화 전략을 취하기도 했어.</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li> <li>•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li> </ul>
-------------	---

◇ 절대 왕정의 성립

• (가) = \_\_\_\_\_ (재위 1556 ~ 1598)



이곳은 (가)의 명령으로 건설된 엘레스코리알 왕립 수도원입니다. (가)은/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로마 가톨릭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키프로스섬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가)은 (는) 교황, 베네치아, 제노바 등과 신성 동맹 군대를 조직하여 레판토에서 그들을 격퇴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교적 사명감에 고취된 (가)은(는) 자신의 속령 네덜란드에 가톨릭 강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칼뱅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독립 전쟁을 격화시켰다.

-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슬레지엔을 차지하였다.
-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였다.

20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1)

◇ 계몽사상

- 계몽사상의 영향을 살펴본다.

◇ 영국 혁명

-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다.
-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
- (가) = \_\_\_\_\_ (1599 ~ 1658)

의회파 지도자 (가)에 대하여 말해 보자.

왕당파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하여 공화정 수립에 기여했지.

집권 후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어.



- 항해법을 공포하였다.
-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하였다.

<p>◇ 영국 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왕( )과 의회의 대립</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친구여,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하고자 글을 쓰네.        이곳의 상황은 날로 여수선해지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20여 년 전 선왕의        즉위와 함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왕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의회가 심사법 등을 제정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었지. 그런데        지금의 국왕은 그렇지 않다네. 의회를 무시하고 선왕 시절 제정된 그        법령들을 폐지하려고 한다네. 그동안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빵과 포도주가 각각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체설 교리를 부정하는 선서를 해 왔는데,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지난 11월에는 의회를 휴회하는 명령을 내리고, 선서를        하지 않은 자들을 관료로 임용했다는군.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더 심해지는        듯하여 걱정이라네. 멀리 있는 자네에게 심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게.</p> <p style="text-align: right;">멀리서 벗이</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되었다.</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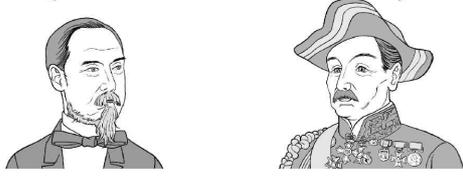
<p>◇ 미국의 독립 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스턴 항구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li> <li>• 미국 혁명 당시 렉싱턴 전투에서 교전을 벌였다.</li> <li>•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그림으로 읽는 세계사</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이 그림은 (가) 시기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한 식민지군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투에서 식민지군은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 속에 치열한 공세를 펼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li> </ul>	
--------------------	---	--

<p>◇ 프랑스 대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 _____ ~ _____ 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프로이센의 그림 남작에게</p> <p>그동안 우리는 프랑스 신민들이 자행한 폭거에 매일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소. 프랑스의 위대한 국왕과 왕비께서는 왕실 구성원들을 데리고 속히 파리를 벗어나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셨어야만 했소. 사실 국왕께서 바스티유 습격 사건부터 지금까지 ①②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행과 수난을 감내해야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소. 지금까지의 사태는 국왕께서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치욕스러운 것이었소. 과거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조차도 생전에는 이와 같은 모진 수모를 당하진 않으셨다고 생각하오.</p> <p style="text-align: right;">에카테리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공안 위원회 회원 (○ : ×)</li> <li>□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루이 16세를 바라보는 시민 (○ : ×)</li> <li>□ 새로 구성된 국민 공회에 참석하는 자코뱅파 인사 (○ : ×)</li> <li>□ 프로이센 등에 맞서 혁명전쟁에 나서는 프랑스 병사 (○ : ×)</li> <li>□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는 의회 의원 (○ : ×)</li> <li>•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실각하였다.)</li> </ul>	
------------------	---	--

<p>◇ 나폴레옹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였다.</li> <li>• 대륙 봉쇄령을 선포(발표)하였다.</li> </ul>	
------------------	--	--

<p>◇ 빈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테르니히가 주도하여 빈 회의가 개최되었다.</li> </ul>
<p>◇ 자유주의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티스트 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li> <li>•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하였다.</li> <li>• (가) = _____ (재위 1852 ~ 1870)</li> </ul> <div data-bbox="448 521 1262 79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에 (가)은 (는) <b>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b> 그 후 적극적인 대외 팽창에 나서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하였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 팽창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림은 막시밀리안이 멕시코 정부군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모습을 화가 마네가 화폭에 담은 것이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 : × )</li> <li><input type="checkbox"/>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 ○ : × )</li> <li><input type="checkbox"/> 7월 혁명으로 즉위하였다. ( ○ :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혁명(1848)</li> </ul> <div data-bbox="448 969 1262 12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그림은 국민의 헌법 제정 요구를 군부에 의지해 막고 있는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풍자한 것이다. <b>파리의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로 일어난 (가)의</b> 영향으로 독일 지역에 서도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b>루이빌리프를 폐위시킨 (가)의</b> 파장이 자신의 나라에도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카르보나리당(단)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 ○ : × )</li> <li><input type="checkbox"/>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로 이어졌다. ( ○ : × )</li> <li><input type="checkbox"/> 메테르니히가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 : × )</li> <li>• 그리스 독립의 배경이 되었다.</li> <li>•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촉발시켰다.</li> </ul>

<p>◇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왕국(1720 ~ )</li> </ul> <div data-bbox="448 1805 1262 201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그림은 <b>가리발디와 (가)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엠마누엘레) 2세</b>의 만남을 묘사한 것이다. 이 만남 이후 가리발디는 자신이 점령한 <b>시칠리아, 나폴리</b> 등을 (가)의 국왕에 바쳐 통일에 기여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보우르(1810 ~ 1861)가 재상으로 활동하였다.</li> </ul>
------------------------	---

<p>◇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나) = _____</li> </ul> <p>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이탈리아 일대를 지배하던 인접국에 맞서기 위해 (나)의 군사력을 빌리는 대가로 사보이(사부아), 니스 등을 할양하였다. 그러나 솔페리노 전투 등에서 큰 병력 손실을 입은 (나)이 (가) 사르데냐 왕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전하였다. 이에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때 사르데냐 왕국이 획득하지 못한 베니치아는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에도 속하지 못했다가, 프로이센이 속적 (가)에 승전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되었다.</p> <p>□ 입법 의회의 선전 포고 이후 혁명전쟁에서 충돌하였다.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54 600 790 75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장관님, 우리는 남부에 비해 산업이 발달한 북부와 중부 지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통합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남부 지역 일대까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805 600 1177 75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내적으로 주요 공업 지대를 획득하고, 대외적으로는 니스 등의 할양을 약속함으로써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아 오스트리아에 맞섰습니다. 아울러 (가)</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치니의 주도 하에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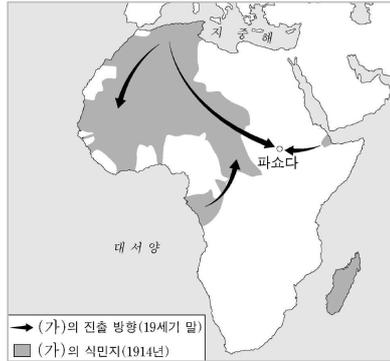
<p>◇ 독일 제국의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스마르크가 군비 확장 정책을 실시하였다.</li> <li>• 알자스·로렌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li> <li>• 빌헬름 1세의 황제 즉위를 통해 수립되었다.</li> </ul>	
--------------------	--	--

23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4)

<p>◇ 러시아의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선포하였다.</li> <li>• 농노 해방과 브나로드 운동의 전개</li> <li>• 니콜라이 2세가 집권하였다.</li> </ul>	
<p>◇ 산업 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혁명과 사회 문제의 대두</li> </ul>	

• (가) = \_\_\_\_\_, (가) = \_\_\_\_\_



**제국주의자 세실 로즈의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

우리 학교 ○○ 건물 앞에 세실 로즈의 동상이 있다. 많은 학우들이 그를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여 '로즈 장학금'을 만든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부가 아프리카 식민 수탈의 결과물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연방을 잇는 (가)의 식민 정책을 주도했던 그가 바로 세실 로즈였다.

케이프타운 대학에 있던 그의 동상은 이미 철거되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그의 동상이 사라져야 한다!

세실 로즈 동상 철거를 위한 모임

• 신흥국 = \_\_\_\_\_

나는 전쟁 직전에 폐하께 우리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간청한 적이 있다. 당시 세계는 두 국가의 대립과 갈등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두 국가 중 하나는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패권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메룬 등을 식민지로 삼아 아프리카로 진출한 신흥국이였다. 이들의 경쟁은 세계를 양편으로 나누어 전쟁 발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 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패권국 편에 남지 말고 신흥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가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 혁명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 (가) = \_\_\_\_\_, (나) = \_\_\_\_\_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 (으)로 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집트가 독립한다면 (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나)은(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야망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조선업자와 면(綿) 제조업자 등 기업가들은 정부와 달리 경제적 이유로 운하 건설에 찬성하였다.

- 모로코에서 두 차례의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 아도와 전투가 발발하였다.
- 이산들오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앙골라, 모잠비크 등을 지배하였다.
- 레오폴드(레오폴트) 2세 통치 하에 콩고 일대를 장악하였다.
- (가) = \_\_\_\_\_, 네덜란드에 무역 거점을 빼앗겼다.

스코틀랜드에 계신 아버지께  
 홍콩에서 보내 온 아버지의 서신을 한 시간 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어 기쁩니다. ... (중략) ... 홍콩과 인접한 이곳에서는 최근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에서 파견된 총독이 일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한 것입니다. 그는 (가)의 식민지인 앙골라의 부총독직을 거쳐, 중국으로부터 확보한 이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우리 상인들의 차 무역을 지원하였지요. 그런데 그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을 적대시하는 강압적 통치와 과도한 경제적 규제 조치를 고수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가련한 자의 죽음 앞에서 어찌 비탄에 잠기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윌리엄 멀로즈

◇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p>◇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나)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세계사 신문</b></p> <p><b>특집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b></p> <p>북서 아프리카의 탕헤르에서 충돌 위기에 직면하였던 (가)와/과 (나)의 갈등은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의 중재로 일단 봉합되었다. 하지만 또 한차례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대표단은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가)은/는 <u>토고와 카메룬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주요 권익을 확고히 하였으며, (나)은/는 콩고강 유역의 일부 지역 이외에도 서아프리카에 있는 자국령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u> 이후 아프리카에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을 체결하였다. ( ○ : × )</li> <li>□ 알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 ○ : × )</li> <li>□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파소다 사건을 일으켰다. ( ○ : × )</li> <li>□ 알자스·로렌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 ○ : × )</li> <li>□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하였다. ( ○ : × )</li> </ul>	
----------------------	--	--

**25**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2)**

<p>◇ 동아시아의 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력시위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다.</li> <li>•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li> <li>• 일본이 시모다 등을 개항하였다.</li> <li>•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개항되었어요.</li> <li>• 제2차 아편 전쟁에 가담하였다.</li> <li>• 애로호 사건을 빌미로 촉발되었다.</li> <li>•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li> </ul>	
-------------------	---	--

<p>◇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간의 전쟁 = _____ 전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어제 호외로 보도되었다. 군함 한 척을 포획하고 청의 군인 천오백 명을 쓰러뜨렸다고 한다. 이제 <b>양국 간의 전쟁</b>이 세계에 표면화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b>이 전쟁의 결과</b>를 예의주시하고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li> <li>• 저들 = _____ (1851 ~ 1864)</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격문</b></p> <p>역적들이 상제회를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켜 난징을 점령하였다. 저들은 서양 오랑캐에서 비롯된 것을 받아들여 천주(天主)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서로를 형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수천 년 예의인륜을 멸절시키려 하고 있으니 무릇 책을 읽고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조전무제도가 발표되었다.</li> <li>• 증국번 등이 이끄는 향응에 의해 진압되었다.</li> <li>• 증체서용을 기치로 내걸었다.</li> </ul>	<p>청</p>
-----------------------	---	----------

◇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 이 도시 = \_\_\_\_\_



- 쑨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어요. ( )
- 의화단과 8개국 연합군이 충돌하였어요. ( )
- 신해혁명을 촉발한 신군 봉기가 처음 일어났어요. ( )

• 봉기 = \_\_\_\_\_

마닐라 일대를 장악한 미국 함대는 에스파냐 군대를 축출하고, 1년여에 걸쳐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산둥성에서 시작된 봉기**가 화북 지방으로 확산되어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이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함대를 보내 중국 내 자국민과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텐진에 상륙한 미군은 베이징을 향해 진격하였다. 곧이어 영국, 프랑스 군대 등과 함께 베이징을 장악하여 사태를 진압한 이후 주둔지를 구축하였으며, 파손된 교회와 공사관 등을 보수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마크 트웨인은 미군의 군사 행동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인들을 유린하는 만행이라고 규탄하였다.

- 백련교 계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였다.
-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 \_\_\_\_\_ (1911 ~ 1912)

**청 정부는 쓰촨성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우창에 주둔한 신군을 파견하였다.** 군대 이동의 혼란을 틈타 우창 신군의 잔여 병력이 거병하여 후광 총독 아문을 점령하였다. 이어 그들은 한양, 한커우의 신군과 협력하여 우한 3진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위안스카이가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하였다.

청

◇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 신정부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자유 민권 운동의 집회에 참석한 지식인 (○ : ×)]



메이지 정부

<p>◇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류큐가 일본에 병합되었다.</li> <li>•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li> <li>• 페번치현의 조치가 단행되었다.</li> <li>•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li> </ul>	<p>페이지 정부</p>
-----------------------	--	---------------

26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3)

<p>◇ 인도의 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li> <li>• 세포이 항쟁과 인도 통치 개선법</li> <li>•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할령을 발표하였다.</li> <li>• (가) = _____</li> </ul> <div data-bbox="454 750 1069 1030" data-label="Imag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람 모한 로이가 주도하였다.</li> </ul>	
--------------------	---	--

<p>◇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을 차지하고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li> <li>•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전개되었다.</li> <li>•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li> </ul> <div data-bbox="454 1254 1005 1534" data-label="Text"> <p>친애하는 나의 벗에게</p> <p>우리 나라의 해군 함대가 중국 해안에서 남쪽 방향으로 출정하였다네. 아군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적함들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지. 당시 <u>마닐라 연안에 구축된 에스파냐의 포대는 제대로 된 대공 사격 한번 하지 못한 채 절령당하였네</u>. 이처럼 필리핀에서 승리한 우리 해군의 탁월한 역량이 쿠바에서도 다시 발휘되지 않겠는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다.</li> <li>•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li> <li>• (가) = _____</li> </ul> <div data-bbox="454 1668 1045 2049" data-label="Image"> </div>	
-----------------------	--	--

<p>◇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탄지마트(은혜 개혁)를 추진하였다.</li> <li>•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li> <li>• (가) = _____ 카자르 왕조</li> </ul> <div data-bbox="450 430 1264 66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그림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가)의 나세르 알딘 샤를 풍자한 것이다. (가)은(는) 한편으로 카스피해 동쪽 방면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 등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샤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다.</li> <li>• 청년 튀르크당이 조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li> <li>• 청년 튀르크당의 집권 과정을 조사한다.</li> </ul> <div data-bbox="450 801 890 105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국은 신교육 도입과 행정 제도의 개혁 등 부국강병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외세의 간섭과 술탄의 전제 정치 강화로 좌절되었다. 이에 지식인과 장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1876년의 헌법을 부활시키는 등 근대적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산업 육성과 교육 및 세금 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혁 조치가 실행되었다.</p> </div>	
----------------------	--	--

<p>◇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li> <li>• (가) = _____, (나) = _____</li> </ul> <div data-bbox="450 1191 1264 14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맘루크들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이(가) 파견한 총독의 약탈이 혼란한 상황을 가중시켰다. 이에 (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봉기하여 맘루크들을 쫓아내고, 총독 쿠르시드 파샤를 무력화시킨 후 군사령관 무함마드 알리를 새로운 총독으로 추대하였다. 당시 세르비아 등 여러 민족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은(는) 무함마드 알리를 (나)의 총독으로 승인하였고, 그는 맘루크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권력을 강화하였다.</p> </div>	
----------------------	---	--

<p>◇ 제1차 세계 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나라 = _____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li> </ul> <div data-bbox="450 1720 944 20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친애하는 외무 장관에게</p> <p>현재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슬라브인들이 과거 술탄의 군대에 달한 것과 같은 압제와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벌받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내부 분쟁과 갈등은 일거에 소멸될 것입니다. ... (중략) ... 아울러 나는 다양한 민족에게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최근에 합병된 보스니아 등지에 대해서도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이는 차르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 헝가리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슬라브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프란츠 대공</p> </div>	
--------------------	--	--

<p>◇ 제1차 세계 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등과 동맹을 맺었다.</li> <li>• 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국 협상에 가담하였다.</li> <li>•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다.</li> <li>• (가)와 단독 강화를 맺었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1조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측은 (가)외(과)의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p> <p>제3조 (가)은(는) 과거 영토 중 일부에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새로이 결정된 국경선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이 국경선의 정확한 위치는 추후 독일 제국 주도의 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킬 군항에서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li> </ul>	
--------------------	---	--

<p>◇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정세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연맹의 창설을 주도하였다.</li> <li>•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이 추진되었다.</li> <li>•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였다.(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였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프랑스 군인들이 깃발을 흔들며 다른 차량들을 막고 있다. 페탱 장군 등이 도뇌르 광장에 군인들과 함께 있다. 대표단들은 회의장인 거울의 방으로 들어간다. 우드로 윌슨과 로이드 조지는 뒤늦게 도착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전승국 장교 넷이 들어오고, 처량한 모습으로 두 명의 독일 대표가 뒤따른다. 클레망소가 “신사 여러분, 조인식을 시작합니다.”라고 말한다.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독일 대표들이 조약에 서명을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해럴드 니콜슨의 목격담</p> </div>	
-----------------------------	---	--

29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민족 운동

<p>◇ 중국의 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두슈 등 지식인이 주도하였다.</li> <li>•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였다.</li> <li>• 5·4 운동을 주도하였다.</li> <li>• 제1차 국공 협력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li> <li>• 연안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li> <li>• 시안 사건으로 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하였어요.</li> <li>• 시안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였다.</li> </ul>	
<p>◇ 인도의 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롤렛법 폐지 운동이 벌어졌다.</li> </ul>	

두 차례의 세계 대전(2)

<p>◇ 러시아 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콜라이 2세가 집권하였다.</li> <li>•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였다.</li> <li>• 임시 정부 = 독일과의 전쟁이 지속되었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노동자, 병사, 농민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혁명을 통해 차르와 귀족의 전제정을 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부르주아 집단의 전제정인 <b>임시 정부</b>를 타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페트로그라드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내고, 내부의 반혁명 세력을 철저히 무장 해제시키고, 혁명 세력을 확고히 조직하여 민중 강령을 확실히 실현하는 것입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셰비키의 무장봉기가 발생하였다.</li> <li>• 신경제 정책[NEP]이 실시되었다.</li> <li>•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되었다.</li> </ul>	
-----------------	---	--

두 차례의 세계 대전(3)

<p>◇ 경제 대공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li> </ul>															
<p>◇ 제2차 세계 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축국 동맹에 참여하였다.</li> <li>• 독일이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li> <li>• 발표가 있었던 시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오늘 새벽 4시, 선전 포고도 없이 독일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저들은 비행기로 키예프, 세바스토폴 등 우리의 도시를 폭격하였습니다. 이는 배신행위입니다. <b>우리 정부는 독일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성실하게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b> 나폴레옹이 우리 땅을 침공했을 때 우리의 대담은 조국을 위한 전쟁이었고, 패배라는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군대는 자유를 위해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 <td style="width: 12.5%;">(가)</td> <td style="width: 12.5%;">(나)</td> <td style="width: 12.5%;">(다)</td> <td style="width: 12.5%;">(라)</td> <td style="width: 12.5%;">(마)</td> <td style="width: 12.5%;"></td> </tr> <tr> <td></td> <td>3국 협상 성립</td> <td>바이마르 공화국 수립</td> <td>대공황 발생</td> <td>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td> <td>카이로 회담 개최</td> <td>북대서양 조약 기구 결성</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기간 = _____ ~ _____ 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타이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 일대에서는 많은 일본군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최근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어 불안감이 고조되었지만, 때마침 본국의 남부 지방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기존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일본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는 미국 대통령( ○ : × )</li> <li>□ 독일에 맞서 선전 포고를 하는 영국 총리( ○ : × )</li> <li>□ 영국에서 저항 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 ○ : × )</li> </ul>		(가)	(나)	(다)	(라)	(마)			3국 협상 성립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대공황 발생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카이로 회담 개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결성	
	(가)	(나)	(다)	(라)	(마)											
	3국 협상 성립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대공황 발생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카이로 회담 개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결성										

<p>◇ 제2차 세계 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다.</li> <li>• 일본에게 진주만 기지를 기습당하였다.</li> <li>• 알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독일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li> <li>•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5개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였다.)</li> <li>• 점령 = _____년 3월</li> </ul> <div data-bbox="454 376 1023 67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사 신문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 특집: 20세기의 사건〉</p> <p style="text-align: center;"><b>독일, 체코슬로바키아를 겨냥하다!</b></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히틀러의 집권 이후 재무장한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 지역 일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u>윈헨 협정</u>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나머지 지역까지 요구하며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는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점령을 감행하였다.</p> </div> </div> <p style="font-size: small;">▲ 독일 재무장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와 주변국</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을 단행하였다. ( _____년 10월 ~ )</li> <li>•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었다. ( _____년 3월)</li> <li>•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공격하였다. ( _____년 4월)</li> <li>•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_____년 6월)</li> <li>• [가] = 제 _____차 세계 대전( _____ ~ _____년)</li> </ul> <div data-bbox="454 891 1023 12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www.〇〇.〇〇.kr</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사 사건 검색</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연합군의 군사 법정이 전범 24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다. 종전 후 이듬해 10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된 이 재판은 [가] 을/를 일으킨 나치 정권 지도자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괴링 등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재판은 침략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고 민간인 학살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p> </div> </div> <p style="font-size: small;">▲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당시 모습</p> </div>	
--------------------	---	--

**32**

현대 세계의 변화

<p>◇ 냉전 체제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민포름이 창설되었다.</li> <li>•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자유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li> <li>• 마셜이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하였다.</li> <li>• 북대서양 조약(1949. 4월) ⇨ _____ [NATO] 창설</li> </ul> <div data-bbox="454 1753 1262 20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제5조</b>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국제 연합 헌장 제51조에 따라 공격받은 회원국에게 즉각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p> <p><b>제6조</b> 위 조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내 모든 회원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프랑스령 알제리, 터키 영토, 북회귀선 북쪽 북대서양 지역 내 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섬들도 해당된다.</p> </div>	
--------------------	--	--

◇ 냉전 체제의 형성

- 상호 원조 강화를 위해 코메콘을 두었다.
-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였다.



그림은 독일 템펠호프 공항에서 군수송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서독 지역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자, **소련은** 이를 독일 분단을 위한 획책이라고 비난하며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 등을 차단하였다.** 이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군수송기로 서베를린에 물자를 공수하였다.

-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의 창립을 초래하였다.
- 공산주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다.
-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다.

◇ 냉전 체제의 변화

-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탈퇴하였다.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체결한 조약을 지키고, 우리 동맹국이 핵의 위협을 받을 경우 직접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그 밖의 내란이나 침략이 있는 경우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
- (가) = \_\_\_\_\_, (나) = \_\_\_\_\_
  - (가) 은(는) 스탈린을 비판하고 서독과 국교를 회복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였다. 한편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결국 포기하였다.
  - (나) 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여 동유럽 자유화를 촉진시켰다.
-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하였다.

- 티토가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3 세계 형성에 기여하였다.
- 반동에서 평화 10원칙을 채택하였다.



지도는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모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총 29개의 참가국들은 이 회의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내정 불간섭,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안보 체제 배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 회의 참가국

◇ 독일의 통일

- 동방정책을 내세워 동독과 교류하였다.
- 베를린 장벽의 붕괴 (\_\_\_\_. 11월)



모든 동독 국경 초소를 통해 서독 및 서베를린으로 상시적인 출국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 앞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상징물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도 시민들이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마셜 계획 발표	반동 회의, 평화 10원칙 발표	제1차 비동맹 회의 개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독립 국가 연합(CIS) 출범	세계 무역 기구(WTO) 창설	

◇ 소련의 해체	• 독립 국가 연합[CIS]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	-----------------------------	--

◇ 동유럽의 자유화 물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국가 = _____</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사 수업 활동지〉</p> <p style="text-align: right;">3학년 ○반 ○○○</p> <p>○주제: (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다.</p> <p>○학습 내용</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독일은 (가)을/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하였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발트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브란트 총리는 독일의 과거사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덴사가 이끄는 자유 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하였다.</li> <li>• 자유 노조 '연대'를 이끌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li> <li>• 하벨이 벨벳 혁명을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다.</li> </ul>	
---------------	---	--

◇ 계속되는 분쟁	•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발생하였다.	
-----------	-------------------------------	--

◇ 중국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_____ (1958 ~ 1961)</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yellow; padding: 5px; margin: 5px 0;"> <p>류사오치는 공산당의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7,000인 대회에서 (가) (으)로 발생한 경제적 곤경과 인명 피해에 대해 “3할은 천재(天災)이고 7할은 인재(人災)이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가) 이(가) <b>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며 개혁을 추구</b>했지만, 실제로는 그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한데다가 뜻밖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마오쩌둥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류사오치 등이 정치적 타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 공사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다.</li> <li>• (가) = _____ (1966 ~ 1976)</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yellow; padding: 5px; margin: 5px 0;"> <p>심각한 소요와 내부 투쟁을 야기한 (가) 은(는) <b>홍위병을 앞세워</b> 국가를 커다란 혼란으로 몰아갔다. 당 조직은 심하게 파괴되고, 당의 지도자들이 솔하게 숙청되거나 파면당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생산은 크게 후퇴하였고, 교육 제도의 마비로 인해 국가는 한 세대의 인재를 잃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yellow; padding: 5px; margin: 5px 0;"> <p>투쟁은 더욱 심화되고 격렬해졌으며 파괴 행위와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다. 모든 학교와 대학이 폐쇄된 가운데 수백만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도시나 마을에서 오래된 건물, 사원, 그리고 <b>전통 문화유산을 파괴</b>하고 스승과 학교 행정관, 당 지도자 등을 공격하였다. 마오쩌둥은 장칭 및 상하이 조반파(造反派) 등을 앞세워 <b>류사오치, 덩샤오핑 등 고위급 인사들을 숙청</b>하였다. 아울러 중국 사회 안의 사구(四舊, 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습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주장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오쩌둥( ~ 1976)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li> <li>• 중국의 전통 문화 유산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li> <li>• 경제 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다.</li> <li>• 학생과 시민이 톈안먼 광장에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li> </ul>	
----------	--	--

## ◇ 세계화와 지역화

- 브레턴우즈 체제를 성립시켰다.
- 유럽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 (가) = \_\_\_\_\_



그림은 영국의  (가)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문제를 소재로 한 것이다. 브렉시트는 2016년 영국 국민 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등 지역 통합을 지향하던  (가) 에 충격을 주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출범하였다.
- 유럽 연합[EU]에 의해 출범되었다.